

2019년 1월 2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일부 기업 급락으로 투자심리 위축

NVIDIA -12.82%, 캐터필라 -9.13%, 아마존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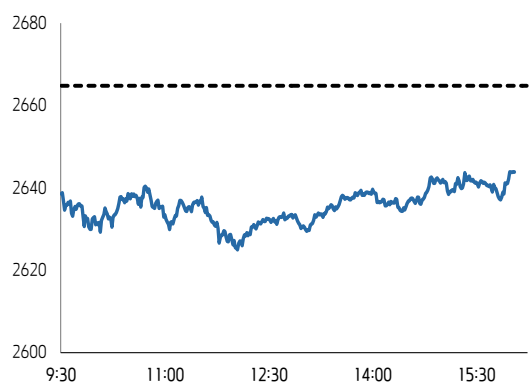
###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일부 기업들이 실적 둔화를 비롯한 악재성 재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특히 이번 주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관련 이슈,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FOMC 등 중요한 변화 요인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점도 하락 요인(다우 -0.84%, 나스닥 -1.11%, S&P500 -0.78%, 러셀 2000 -0.63)

최근 애플과 페덱스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속에 수요 둔화를 이유로 가이드نس 하향 조정하자 부진. 이런 가운데 NVIDIA(-13.82%)는 암호화폐 관련 GPU 수요 감소와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둔화, 더불어 중국내 게임관련 매출 둔화를 빌미로 가이드نس 하향 조정하자 급락. NVIDIA 는 공급 안정화에 1~2 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9.13%)도 중국 판매량 감소 여파로 실적 부진. 결국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팩트셋은 2019 년 1 분기 S&P500 영업이익이 한 때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중간 관세 발효 이후 하향 조정이 이어져 현재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또한 FANG 기업들 특히 아마존(-1.96%)이 급락한 점도 미 증시에 부담. 아마존은 여타 소매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돼 향후 매출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그동안 미국의 소매유통업체들의 변화는 아마존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 특히 2005~2015 년 동안 미국 백화점 판매는 31% 감소했으며, 이는 백화점 업체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음. 한편, 아마존이 온라인 약품판매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국체인점의 주가가 급락. 또한 아마존이 오프라인 신선식품 업체를 인수하자 관련 산업 또한 부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자 월마트는 2018 년 MS 와 계약을 맺고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 1 월 초에는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부츠가 MS 와 7 년간 계약했으며, 최근 식품업체인 크루거도 MS와 협약. 이런 가운데 식품업체인 알버트슨이 MS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과 소매유통업체들과의 경쟁 가속화 우려 부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77.30	-0.02	홍콩항셱	27,576.96	+0.03
KOSDAQ	714.26	+0.40	영국	6,747.10	-0.91
DOW	24,528.22	-0.84	독일	11,210.31	-0.63
NASDAQ	7,085.69	-1.11	프랑스	4,888.58	-0.76
S&P 500	2,643.85	-0.78	스페인	9,062.40	-1.34
상하이종합	2,596.98	-0.18	그리스	630.70	-0.41
일본	20,649.00	-0.60	이탈리아	19,608.13	-1.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바이오 업종 부진

NVIDIA(-13.82%)는 GPU 수요 감소와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둔화에 따른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했다. NVIDIA는 수급 안정화에 1~2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부담이었다. 마이크론(-2.26%), 인텔(-0.70%), 텍사스인스트루먼트(-1.66%) 등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다만, NVIDIA 급락에도 불구하고 매물 출회는 제한되었다. 캐터필라(-9.13%)는 중국 판매 감소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 했다. 디어(-3.10%)도 동반 하락 했다. 애플(-0.93%), 페덱스(-0.80%) 등 최근 중국내 수요 둔화를 언급 했던 기업들도 부진했다.

아마존(-1.96%)은 소매유통업체들과의 경쟁 가속화에 따른 부진한 실적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이 여파로 MS(-1.95%), 알파벳(-1.97%), 페이스북(-1.03%), 넷플릭스(-0.71%) 등도 동반 하락 했다. 반면, 월마트(+0.12%), 코스트코(+0.81%) 등은 보험권을 유지 했다. 한편, 에브비(-4.22%), 화이자(-2.73%) 등 제약업종과 암젠(-3.43%), 바이오젠(-2.01%) 등 바이오업종은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반면, 담배회사인 알트리아(+2.40%)는 최근 하락이 과도 했다는 보고서 발표로 상승 했다. 필립모리스(+2.23%)도 동반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74%	대형 가치주 ETF(IVE)	-0.48%
에너지섹터 ETF(OIH)	-2.44%	중형 가치주 ETF(IWS)	-0.08%
소매업체 ETF(XRT)	-0.29%	소형 가치주 ETF(IWN)	-0.27%
금융섹터 ETF(XLF)	-0.31%	배당주 ETF(DVY)	-0.53%
기술섹터 ETF(XLK)	-1.33%	변동성 ETF(VXX)	+4.1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5%	대형 성장주 ETF(VUG)	-0.95%
인터넷업체 ETF(FDN)	-0.89%	중형 성장주 ETF(IWP)	-0.57%
리츠업체 ETF(XLRE)	+1.00%	소형 성장주 ETF(IWO)	-0.82%
주택건설업체 ETF(XHB)	+0.3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2%
바이오섹터 ETF(IBB)	-1.9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6%
헬스케어 ETF(XLV)	-1.14%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14%
반도체 ETF(SMH)	-1.87%	Long/short ETF(BTAL)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9.90	-1.03%	-2.47%	+7.97%
소재	332.44	-0.08%	-0.76%	+5.20%
산업재	583.82	-1.00%	-1.07%	+8.42%
경기소비재	841.03	-0.72%	-0.73%	+9.12%
필수소비재	533.33	+0.46%	-0.93%	+2.55%
헬스케어	1,017.44	-1.14%	-2.43%	+3.08%
금융	430.48	-0.27%	-0.27%	+9.82%
IT	1,141.83	-1.40%	-0.41%	+5.65%
커뮤니케이션	147.02	-1.14%	-1.83%	+6.04%
유틸리티	269.50	-0.46%	-0.10%	+0.52%
부동산	207.60	+0.96%	+2.47%	+8.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5% MSCI 신흥국 지수도 1.0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84 계약)로 0.20pt 하락한 281.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95 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FOMC 등 주요 변수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전일 한국 증시도 중요 변수 발표를 앞두고 매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NVIDIA 의 급락 여파로 2.09%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NVIDIA 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의 하락은 제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서의 관련종목 부진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VIDIA 와 캐터필라 실적 둔화는 중국 수요 부진이 중요 요인이었는데, 이는 최근 애플과 페덱스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이미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캐터필라 실적 부진으로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재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은 부담이다. 한편, 백악관에서 30~31 일 있을 무역협상에 대해 대중국 강경파인 로버트 하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제한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1 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개선 되었다. 기업활동 지수는 전월(-5.1)이나 예상치(-4.6) 보다 개선된 1.0 으로 발표되었으며,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7.3) 보다 개선된 14.5 로 발표되었다. 반면, 신규수주(14.4→11.6)는 둔화되었다.

12 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0.21) 이나 예상치(0.15) 보다 개선된 0.27 로 발표되었으며, 3 개월 평균 또한 전월(0.12) 보다 개선된 0.16 으로 발표되었다.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는 캐터필라 실적 발표 여파로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재부각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개월 연속 공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들어 17% 넘게 급등한 점도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다.

달러화는 무역협상과 FOMC 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드라기 ECB 총재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ECB 는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언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캐터필라 실적 부진으로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재부각 된 점이 부담이었다. 반면,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75 배) 보다 낮은 2.56 배, 5 년물 응찰율도 12 개월 평균(2.45 배) 보다 낮은 2.41 배를 기록한 점은 하락폭을 제한한 요인 이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9%, 철근은 1.4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99	-3.17	-3.79	Dollar Index	95.746	-0.05	-0.61
브렌트유	59.93	-2.77	-4.48	EUR/USD	1.1427	+0.18	+0.55
금	1,309.30	+0.39	+1.58	USD/JPY	109.38	-0.16	-0.26
은	15.765	+0.42	+2.38	GBP/USD	1.3163	-0.25	+2.10
알루미늄	1,867.00	-2.76	+0.81	USD/CHF	0.9919	-0.20	-0.53
전기동	6,002.00	-0.89	+0.35	AUD/USD	0.7169	-0.14	+0.14
아연	2,680.00	+0.26	+3.55	USD/CAD	1.3254	+0.27	-0.30
옥수수	379.75	-0.13	-0.52	USD/BRL	3.7657	-0.14	+0.15
밀	518.75	-0.24	+0.19	USD/CNH	6.7509	-0.04	-0.74
대두	923.25	-0.22	+0.71	USD/KRW	1117.70	-0.32	-0.92
커피	102.65	-3.89	-2.19	USD/KRW NDF1M	1117.95	+0.08	-1.12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44	-1.45	-4.02	스페인	1.217	-1.10	-14.60
한국	2.015	+1.30	-1.50	포르투갈	1.645	+0.10	-10.30
일본	0.002	+0.50	-0.60	그리스	4.039	-2.10	-10.00
독일	0.205	+1.20	-5.00	이탈리아	2.663	+1.50	-9.40